

1학년 교육의 중요성과 서울대학교의 과제



세계적으로 '1학년 교육'이 각 대학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약 닷새 동안 영국의 Southampton에서는 1학년 교육을 위한 국제학술대회(18th International First-Year Experience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세계 15여 개 나라 300여 명의 대학교육 관련자와 교육 학자들이 모여 각국 1학년 교육의 현황과 구체적인 개선 사례들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공동으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세계의 대학들이 1학년 교육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이 작용한 바가 크다. 고등교육기관임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교육의 질, 교양과정에서 뿐 아니라 전공과정으로까지 계속되는 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학문적 동기와 지적 성취,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로서 가지는 자질의 한계, 대학에서 형성한 지식과 태도가 사회와 직업현장에서 가지는

낮은 유용성과 짧은 효용기간, 상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취학인구의 감소, 휴학과 전학 등으로 인한 학생 일탈률의 증가, 그리고 신입생들의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부터 많은 대학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학년 교육이 그 핵심이라는 점에 착목하게 된 것이다.

1학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우선 1학년 교육과정은 이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가 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식의 영역과 수준에 있어서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한 사람의 지적인 성장을 위하여 유기적 통합성을 가지고 구성되므로 결국 1학년 교육과정은 곧 대학교육 전체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1학년 교육은 학문을 소재로 탐구하는 방법과 태도, 열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기회가 된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학문 활동에 입문하고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안목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교양과정에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학문 탐구 능력과 태도는 이후 전공영역의 성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학년 동안은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일 혹은 세부 관심영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학부로 입학하거나 전공이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1학년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미국 대학들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70%에 가까운 1학년 학생들이 최소 1번 이상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영역을 바꾸는 경험을 한다. 이에 더하여 1학년 시기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김 지 현

기초교육원 연구교수



중요한 생활습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대학과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때 결정되며 이는 추후 이들의 대학에서의 생활방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형태를 결정짓는다. 1학년 때의 학점은 졸업평균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이후 대학생활에서의 성공을 예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1학년 교육이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학생 각자의 대학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됨에 따라, 각 나라의 대학들은 1학년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의 큰 맥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 교육을 위하여 전 학교 차원의 목적과 사명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세계의 대학들은 각 학교의 1학년 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실현의지를 가지고 이를 모든 학교의 정책과 실재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보다 효율적인 1학년 교육을 위하여 교무처, 학생처, 학부대학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등을 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1학년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둘째, 1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한다. 1학년 학생들이 중요한 개념과 이론들을 알고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인 추론 등 제반 필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과정의 교과목들을 개발한다. 각각의 교양교과목들은 담당위원회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고 평가됨으로써, 강의가 원래의 개설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다양한 교과목들을 공동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하나의 교육과정 수강단위나 탐구단위가 되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learning academy', 'learning community' 등을 구성함으로써 연계되는 교과목들 간에 상승적 교육 효과를 가져오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한다.

셋째, '신입생 세미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진로를 모색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학문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임교수와 소수의 학생들이 만나 밀접하고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강의이다. 신입생 세미나는 각 대학의 1학년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을 설정하여 강의의 중점내용, 학점 배분, 성적처리방식, 담당교수, 수강인원 및 구성방식, 개설시기, 수강학기 수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2005년 현재 미국 대학의 90% 이상이 신입생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대학들이 이런 형태의 강의를 도입하고 있다. 신입생 세미나는 학생들의 학교적응, 향후 학업성취, 학교와 교수에 대한 적극적 상호교류, 전공탐색 등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넷째, 1학년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태도 자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한다. 1학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학문하는 태도와 능력' 자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learning strategy', 'academic skills' 등을

가르치는 독립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인으로서 학문의 내재적 가치를 알게 하고 학문을 소재로 탐구하는 내적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한다.

다섯째, 교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헌신을 실현한다. 대학 교수들의 임무가 ‘연구’ 못지않게 ‘교수(teaching)’에도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한 한 각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교육적 성취를 이룬 교수들이 1학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 내에서 경험이 많은 교수와 새로 임용된 교수들이 ‘교수’ 자체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educational leadership improvement program)’과 강의의 종류별로 담당 교수 워크숍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수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방법들, 애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신입생 세미나와 교양과정 강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다.

여섯째, 1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활동에 선배 학부학생들이 적극적인 조력자로 참여하는 ‘동료 지도(peer mentoring)’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1학년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주체는 더 이상 교수들만이 아니다. 대학원생들도 학부교육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학부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직전에 해당 강의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였던 학생들이 다음 강의에서 후배들을 위한 ‘교수인턴(teaching intern)’, ‘강의조교(teaching assistant)’ 혹은 ‘작은 스승’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정규 강의나 신입생 세미나, learning community 활동, 학습부족 학생들의 보충학습지도 등 여러 형태로 신입생들의 학습과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는다.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동료지도자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명함을 만들어주거나, 성적표에 특기사항으로 기록해 주는 등 내적동기에 의한 참여와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는 자긍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여러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일곱째, 삶과 삶의 통합을 위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한다. 1학년 동안은 삶의 구조 자체가 새롭게 규정되는 시기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대하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고 좋은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요지에 기숙사를 짓고 1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수들과 양질의 교류를 하는

맥락과 시간, 밀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들을 기숙사 담당조교로 선정하고 수강단위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배려한다. 이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생활 전체를 교육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 학교의 지도와 배려가 함께 한다.

여덟째, 1학년들의 현황과 다양한 성취, 그리고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평가들이 적극 개발·활용되고 있다. 평가의 시기, 평가자, 평가대상, 평가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1학년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들이 계속된다.

이상과 같은 1학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내실화를 위한 세계 대학들의 노력에 비추어 서울대학교 1학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연구’를 강조하는 대학원 중심의 대형 대학으로서, 특히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학부 소속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많은 1학년 학생들의 교육이 처한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최근 기초교육원이 실시한 교양교과목 수강소감 조사결과에 의하면 1학년 학생들은 ‘교육으로부터의 소외’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강의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다른 학년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다. 1학년 학생들은 절대적인 학습시간에 있어서는 고학년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들만큼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높은 학업성취로 연결되거나 강의의 질적 수준을 체험하는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들보다 강의에 더 많이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강의에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타 학년에 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1학년 학생들이 교양강의에서 취득하는 평균 학점도 고학년에 비하여 낮으며 A학점을 받는 비율도 여타 학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단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1학년 교육을 위한 관심과 개선의 노력은 이제 그 출발 단계에 있다. 2002년도에 기초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초교육원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교양교육 커리큘럼이 학문의 기초·핵심교양·일반교양과 특별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내용과 방법들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이는 크게 보면 교양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고,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의 상승적 통합의 노력이기도 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1학년 학생들의 교육이 내실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지난 학기부터는 새로이 1학년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도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이는 전 학교 차원에서 1학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그 관심을 구체적인 강의의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교육을 위한 개선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1학년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증축될 필요가 있다. 2005년 1학기 현재 1학년 의 30% 정도만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의인 신입생 세미나도 현재 60개 정도의 강좌만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강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1학점 강의를 한 학기만 수강하는 것으로는 신입생 세미나의 목적과 학생들이 강의에 기대하는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1학년을 위한 교양교육의 수준조절과 배려, 핵심적인 내용과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 개발은 계속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보다 더 밀접하고 직접적인 학생과 교수, 선후배 학생들 간의 바람직한 지도와 교류를 위한 기제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수강소감조사지’의 차원 뿐 아니라 강의와 학생들의 현황, 학생들의 성취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들이 1학년 교육의 개선과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용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1학년 교육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교수들의 교수활동의 수준 자체를 향상하는 노력의 필요성이다. ‘교수’와 ‘탐구’라는 교육활동은 여타 학문이나 예술 영역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지식의 작용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메타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문이나 예술을 소재로 탐구하는 능력은 대학에서 형성해야 하는 기초능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선시 되어야 할 능력이다. 대학의 신입생들은 입시를 목적으로 도구화된 정보차원의 지식을 강제적으로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패러다임을 버리고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의 탐구활동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행되는 패러다임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1학년 학생들의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메타교육 교과목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의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수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메타교육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강의일 경우에 훨씬 더 유의미한 교육적 성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 1학년 학생들은 많은 필수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식의 중요성과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1학년 교육의 패러독스’라고 불릴 수 있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와 ‘지식의 가치에 대한 사후적 이해’라는 난해한 문제는 담당교수의 높은 수준의 교수활동과 교육적 열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1학년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여타 학년들을 위한 강의에 임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수활동을 해 낼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1학년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교수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타교육 프로그램들이 대학 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한다. 1학년 교육의 핵심은 이러한 ‘메타교육적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메타교육적인 노력은 여타의 1학년 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학년 교육은 대학생들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공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을 다룰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대학 내에서의 1학년 교육의 위상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1학년 교육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지원과 높은 수준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대학과 학문과 탐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과 핵심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